

코아로직, 1분기 매출 510억원 달성

코아로직(대표이사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멀티미디어 칩 분야 매출이 급속히 증가, 지난 1분기 팹리스 업계 최대 매출 규모인 51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아로직은 멀티미디어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MAP)를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 이후, 전체 매출의 70%까지 비중을 확대시키며 MAP 제품군을 육성했다. 지난 1분기에는 MAP누적 출하량 1,000만개를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코아로직은 MAP 매출 급증에 따라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늘어난 5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 총이익은 144억원, 영업이익 84억원, 순이익 87원 등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코아로직은 MAP 시장에서 선두 입지를 굳히면서 이익도 상승하여 매출은 지난 4분기 549억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매출 총이익은 4분기 대비 8.2%가 늘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2%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60.6%가 늘어났다. 순이익 또한 전반기에 비해서는 21.2%,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9.9%가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엠텍비전, MMP 사업 '무계중심'

엠텍비전(대표이사 이성민 www.mtekvision.com)이 제품중심 비즈니스에서 한 단계 발전한 기술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멀티미디어플랫폼(MMP)사업 강화에 나선다. 엠텍비전은 MMP 분야 기술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수원과 구미에 'MMP기술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원에 MMP 기술센터는 새로 설립하고, 구미는 기존 사무소에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해 MMP기술센터로 승격시켰다. 해외 고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중국 베이징과 독일 뮌헨의 사무소도 기술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MMP 기술센터 설립은 반도체 고기능화에 따라 사업방향을 제품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엠텍비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창진 MMP 기술센터장은 "MMP기술센터는 멀티미디어칩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 캐나다에 설립한 MTC(Mtekvision Canada)의 어레이 프로세서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글로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멀티 칩 설계 특허 3건 취득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서승모 www.cnstec.com)는 멀티미디어 칩 설계와 관련한 특허 3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고속영상압축장치', '듀얼 이더넷 컨트롤러와 그 이더넷 컨트롤러간 패킷 전송방법', '고속메모리(DDR SDRAM)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 등 멀티미디어 칩 성능을 향상하고 설계를 쉽게하는 특허들이다. 씨앤에스 측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특허 취득 건수에 있어 전체 코스타상장기업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다"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분야의 특허를 200여 건 이상 출원해 이 중 100여 건의 특허를 등록, 멀티미디어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디칩스, 아날로그 부품 통합한 MCU 개발

에이디칩스(대표이사 권기홍 www.adc.co.kr)는 더제이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현오)와 협력해 아날로그 부품까지 모두 통합한 모바일 범용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에이디칩스의 32비트 확장형 명령어 구조(EISC)식 CPU를 기반으로 연산 증폭기(OP앰프) 3개와 비교기 3개, 10비트 디지털 신호 변환기(ADC)등의 아날로그 핵심부품과 USB·64 플래시메모리·4 S램메모리·타이머·시리얼 인터페이스·메모리 컨트롤러·인터럽트 컨트롤러 등 주변 기능 부품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한 SoC이다. 권기홍 에이디칩스 사장은 "에이디칩스의 디지털 기술과 더제이테크의 믹스드 설계 기술을 융합해 저전력 고성능 32비트 MCU를 개발했다"며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해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인정보통신, SSD 컨트롤러 칩 양산

플래시메모리 카드리더 전문업체인 세인정보통신(대표이사 권오진 www.sain.co.kr)이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SSD(반도체형 컴퓨터 저장장치)의 컨트롤러 칩(모델명 ATA16V2L)을 개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UMC'를 통해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인정보통신이 대만에 발주한 SSD 컨트롤러 칩의 1차 물량은 모두 16만개로, 생산된 제품은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대기업에 전량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에 양산하는 컨트롤러 칩은 이미 100만개 이상 판매한 플래시메모리 컨트롤러 칩을 기반으로 개발, 동작 에러나 제어 착오 등이 거의 없어 신뢰성이 탁월한데다 ATA 인터페이스 방식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컨트롤러 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젠코아, 美 타임과 수정부품 판매 독점 계약

젠코아(대표 윤석원 www.gencore.co.kr)는 미국 수정부품 업체인 시타임(SiTime)과 국내 판매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타임은 미세가공 기술을 이용해 수정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 8인치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CMOS) 웨이퍼를 이용해 만든 시타임의 수정부품은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게임기, 셋톱박스, MP3플레이어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40도에서 80도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낸다. 1~125㎐의 주파수를 지원하며 1.8V, 2.5V, 3.3V의 낮은 전압에서도 작동된다. 윤석원 사장은 "아직 수정부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선 기술의 시타임 제품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안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